

1995. 1. 22

이혼아내·자녀한테 박대

공기총싸 아들 숨져

부산 사하경찰서는 21일 이혼한 전 부인과 자녀들이 자신을 냉대한다는 이유로 새벽에 잠자던 자녀들을 공기총으로 쏘아 아들을 숨지게 한 잠판권(49·부산 사하구 괴정3동 산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잠씨는 이날 새벽 2시30분께 사하구 괴정3동 산1번지 자신이 살던 집에 찾아가 안방에서 자고 있던 차남 승진(17·부산·상고1)군의 머리를 미리 갖고간 십자형 5.5구경 공기총으로 쏘고, 총소리를 듣고 건넌방에서 달려온 장녀 현정(22)씨의 목에도 총을 쏘아 중태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부산/최익림 기자